

「이퇴중후군」번진다

우울하고 머리가 아파
다. 심장에 통증이 있다.
슬담배가 들고 아내도의
심스럽다. 가족 친지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직
장생활을 회고하면 울화가
치민다.

감원바람에 밀려 하루
아침에 직장을 오후 40, 50
대고 하면 중년퇴직자들이
「이퇴중후군」(Retirement
Syndrome)에 시달리고
있다. 주로 안정적인 직장
에서 순탄한 길을 걸으며
일만 해온 이들이 실직충
격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자살충동까지 느끼고 전
문의에게 토로하고 있다.

충격 공포 減員 失職

속 다니는 중년들 사이에
자그온 후 5명이 치료를
서도 나타나 새로운 사회
받고 있다. 정신질환을 리
병리현상으로 대두되고 있
니를 운영중인 서울대병원
다. ★관련기사 5면
9일 대정병원의 전문을
이 치료를 받았고 아주대
이퇴중후군의 「공포장

은 환자가 이 정도일 뿐
1, 2차례 상담만 하고 돌
아가는 「이퇴중후군」 환자
도 많다고 말했다.

泰宇교수(가정의학과)는
『의학적으로 「적응장애」
로 분류되는 이퇴중후군
은 한창 일할 나이인 40,
50대 가자들이 퇴사 후 새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생
긴 증상』이라며 『특히 공
무원, 은행원, 교사 등 안정
적 지위와 승진이 보장된
직장에서 일해온 퇴직자에
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설
명했다.

우울증·두통·피해의식에 의처증까지 40·50대 병원행렬 사회병리현상 대두

리노과 정신과 전문병원
에 따르면 병원마다 이퇴
중후군 환자들이 찾아와 치
료를 받고 있다. 고려대 안
암병원에는 5월에 첫환
관계자는 『정기치료를 받
정신장애.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李鎬榮교수
(정신과)는 「이퇴중후군」
중년퇴직자들의 「평생직
장」의식과 우리 사회의 냉
정한 경제논리가 만유를 처

생긴 일종의 사회병리현
상』이라며 『기업이 퇴직자
에게 재취업을 위한 유예
했다.』
【洪德基·金正坤기자】

